

# 체신부장관 초청 정보통신업계 조찬간담회



宋彦鍾 체신부장관을 초청한 정보통신업계 조찬간담회가 지난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개최됐다.

협회가 민관의 유기적인 결속과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회원업체대표 등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 상견례에 이어 격의없는 대화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해 정문성 현대전자산업 이사와 이종희 동진정보통신사장, 김현진 현영시스템 사장 등이 송언중 체신부장관에게 건의한 주요 건의내용과 체신부장관의 답변내용이다.....편집자 註

## 지상중계

### 건의 1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종합행정인 내무행정분야에 오래 근무하시고 금번에 체신부를 맡게 되셨는데, 우리 민간업계에서는 장관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큼니다.

강한 추진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정평이 나신 송장관님께서서는 개화기에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업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어떠해야 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정 문 성 (현대전자산업 이사)

### 정부와 민간업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민간업체 주도로 발전되도록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술 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답변 1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다른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고도성장 산업분야로서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민간업체의 주도로 발전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투자회임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수준이나 시장수요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선진 외국업체를 상대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민간업체에서도 당장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만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지상중계

### 건의 2

통신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DB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



이종희 (동진정보통신 사장)

해 내는 DB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DB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업계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DB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우리 민간업계와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답변 2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정보통신의 주요한 요소로서 중요성이 점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말기의 보급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개발도 미흡하여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체신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수요를 확충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표준화를 추진하며,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계획에 민간업계에서도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연종 (체신부장관)

## DB산업 육성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을...



체신부가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민간업체에서도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중계

### 건의 3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진행되어 오는 지난 몇년 동안 우리 민간업계는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가져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UR협상이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고, 향후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UR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업계종사자들은 상당한 우려와 기대를 한꺼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국내시장이 채 성숙되기도 전에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결국 국내시장이 선진외국업체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기대의 측면에서는 이번 통신시장 개방이 국내업체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관님께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 현 진 (현영시스템 사장)

### 정보통신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상응하여 정보통신사업 육성계획 등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 민간업체가 국제경쟁력을 갖춘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업계가 단합하여 개방에 따르는 애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상응하여 정보통신사업 육성계획,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계획, 데이터베이스 개발·지원계획 등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수시로 민간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